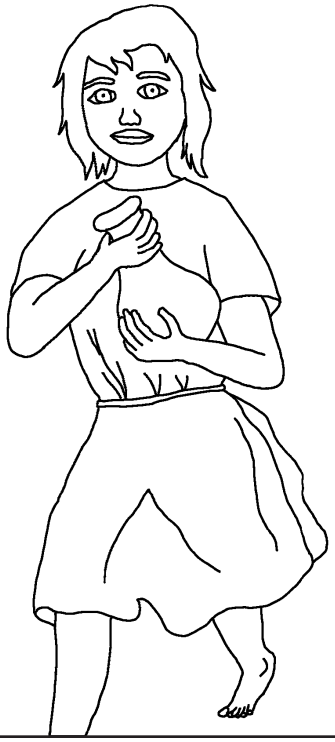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하나님의 종, 사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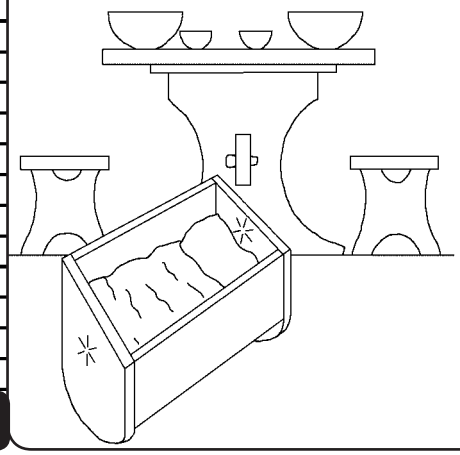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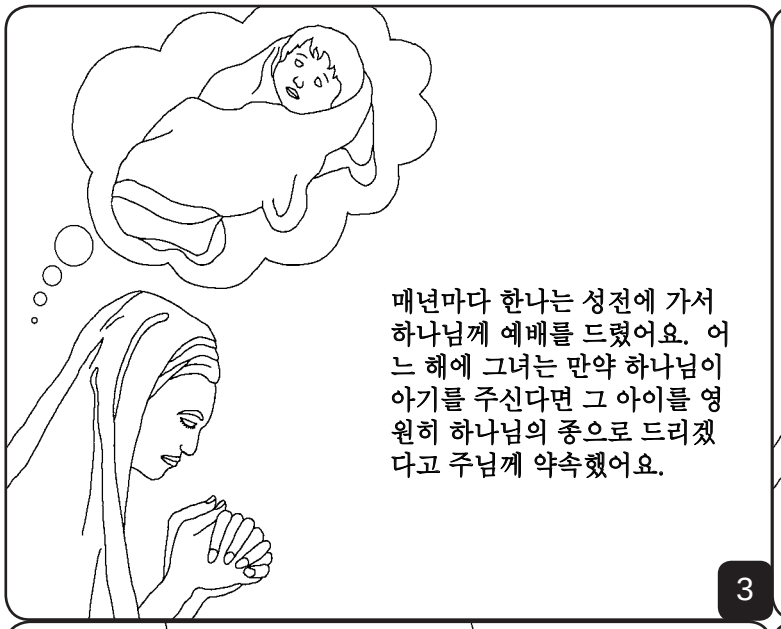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Alastair Paterson
각색: Lyn Doerksen
번역: Helen Hwang; Jessica Ju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BFC
PO Box 3
Winnipeg, MB R3C 2G1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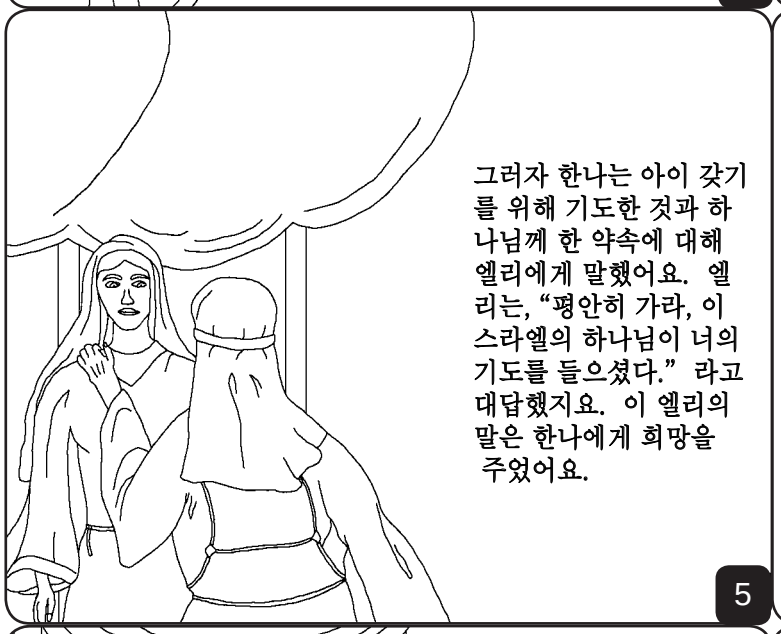
©2022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한나 라고 하는 착한 여인이 엘가나와 결혼했지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에서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매년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해에 그녀는 만약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어요.
3

그때 늙은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는 한나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입술은 계속해서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꾸짖었어요.
4


그러자 한나는 아이 갖기를 위해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 엘리에게 말했어요.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대답했지요. 이 엘리의 말은 한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5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어요. 주님이 그녀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지요. 한나와 엘가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는 뜻으로 '사무엘' 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과연 한나는 주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을까요?
6

한나는 매년 성전에 가는 일을 멈췄어요. 맙소사! 그녀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하며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때가 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지요.
7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사무엘 이후로 아들 셋과 딸 둘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한나는 매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사무엘에게 그녀가 지은 새 옷을 건네 주었어요.
8

엘리를 돕는 사람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의 친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죄악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어요. 엘리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들은 악한 행동을 고치지 않았지요. 엘리가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은 그를 부르는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고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일이 세번씩이나 반복되자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지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만약에 또 너를 부르시면, '주님, 당신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소서' 라고 대답하거라" 라고 지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 주셨지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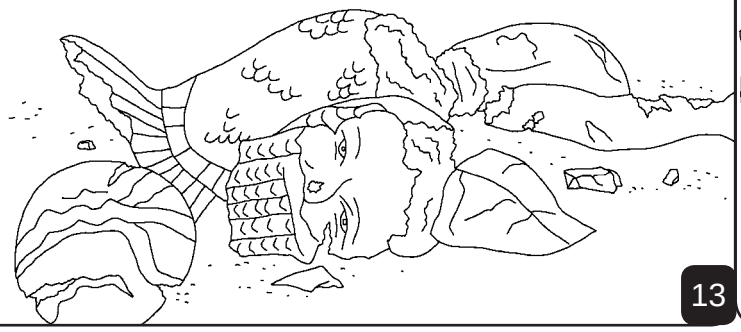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주님께서 홉니와 비느하스가 너무 악해서 엘리의 온 가정을 치실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했지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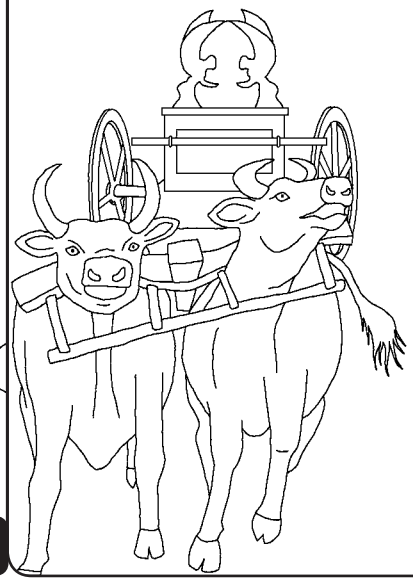
하나님의 경고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언약궤는 빼앗겼고, 홉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죽임을 당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고 말았어요.

12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었지요.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바닥에 엎어진 채 발견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신상을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신상이 산산조각이 되어 다시 엎어져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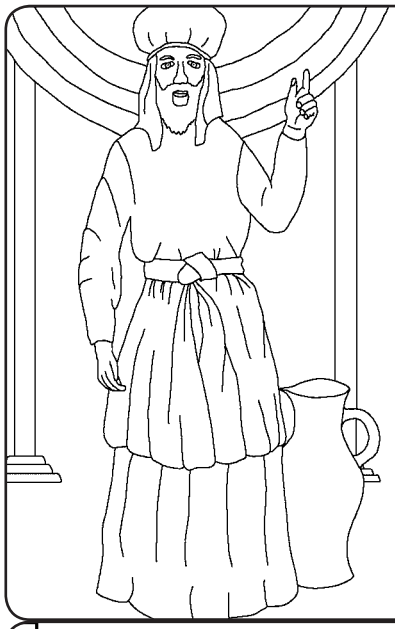


13



또한 질병과 죽음이 온 블레셋에 퍼지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하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 소들의 송아지는 데리고 있었지요. "만약 저 소들이 송아지를 남겨 둔채 이스라엘로 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소들은 이스라엘로 향했지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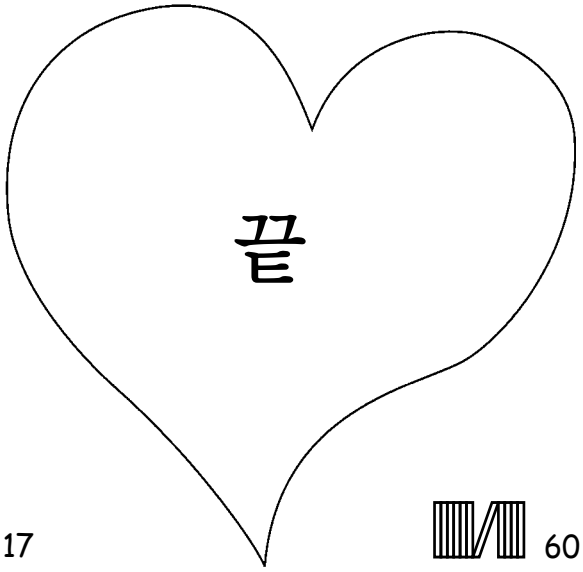
이제 어른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I 17

VI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